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용일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질문제목	가락시장 휴업 등 환경변화 관련 대응 전략은?		
<질문내용> ○ 가락시장 개장일은 주6일, 연간 305일, 종사자 82%가 장시간 야간근로 (35%는 일10시간 초과 근무) ○ 코로나-19 이후 구인건수 1.8배 증가, 중도매인·하역인 평균 연령 60세 도달 - 중도매인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 인력확충 한계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內 경쟁제한, 도매법인 수익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필요 - 온라인도매시장을 물류 비효율(先물류 後거래) 등 現 도매시장 대안으로 추진 ○ 이러한 근로환경 변화 필요성, 유통구조 변화, 가락시장 물량 감소, 중도매인의 영세화,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가락시장의 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은 가락시장 수준으로 거래품목이 확대되었고, 곧 수산물 또한 거래를 준비중인데 만일 가락시장의 존재 이유에 비해 거래물량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서면질문서 제출공문>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참조 의사담당관

제목 서면질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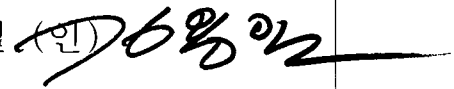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서면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서면질문서 1부. 끝.

제 출 자

소속 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의 원 명 : 김 용 일 (인)



김용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서면질문 개요〉

☐ 질문제목 : 가락시장 휴업 등 환경변화 관련 대응 전략은?

☐ 질문내용

1. 근로환경 변화 필요성, 유통구조 변화, 가락시장 물량 감소, 중도매인의 영세화,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가락시장의 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2.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은 가락시장 수준으로 거래품목이 확대되었고, 곧 수산물 또한 거래를 준비중인데 만일 가락시장의 존재 이유에 비해 거래물량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락시장 변화 필요성에 따른 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은?

-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가락시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유통인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음
 -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거래구역 정온 시설화, 저장·소분·가공 시설 확대,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향후 부족한 물류시설은 현재 나대지 주차장으로 조성될 가락시장 중심부의 공동배송장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음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전자송품장 도입, 팻릿출하율 확대, 공동물류 도입 등의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물류 비용 절감을 도모하겠음
 - 또한, 지속가능한 유통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발맞춰 단계별 개장일 감축을 추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음

2.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에 따른 가락시장의 대책은?

- 가락시장을 온·오프라인 도매시장의 통합물류 거점으로 키워나가겠음
 - 온라인 도매시장은 물류기능이 없는 거래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기능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도매시장의 물류기능은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상당부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자인 중도매인의 점포가 도매시장 내에 있고, 향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매시장 내 IT기술·콜드체인에 기반한 저온창고·소분가공장·공동배송장 등의 인프라 적극 활용
 - 특히, 가락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 기능에 온라인 물류가 통합되어 소분, 재분류, 구색 수요가 증가하며, 수도권 및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물류 허브로 역할을 더욱 강화
- 온라인 도매시장의 규제 완화(거래제도, 품목제한)를 적극 활용 가락시장의 경쟁체제 강화 및 반입 물량을 확대시키겠음
 -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규제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 外 판매(제3자 판매)와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구매가 허용되어, 가락시장 유통종사자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가락시장 반입 물량 증대가 기대
 -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제한된 가공식품을 가락시장에 반입하여 판매 할 수 있게 되어 가공식품 분야의 가락시장 거래기능 확대 가능
- 향후 온라인 도매시장의 품목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도매시장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 운영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음

- '24.1~10월 온라인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실적을 보면, 전국 거래금액 중 43.2%(청과부류 기준 840억원)가 가락시장 유통인에 의한 거래로 가락시장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주도

작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혁신팀)	유통혁신팀장	서경남
	☎ 3435-0577	부장	이성재
	작성일	2024.11.21.	

별첨 자료

(도매시장 유통 · 물류혁신
추진현황)

1.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시범 운영

☐ 추진 배경

- **가락시장 종사자 주6일 장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환경 열악**
 - ※ 가락시장은 주 6일 연간 305일(일본 253일) 개장(공휴일은 설, 추석, 1.1, 하계휴업)
 - ※ 종사자 82%가 장시간 야간근로(35%는 일 10시간 초과 근무) … '24.7월 설문
- **피로누적에 따른 도매시장 유통 인력 이탈 및 구인난 심화**
 - 코로나 이후 구인전수 1.8배 증가, 중도매인·하역인 평균연령 60세* 도달
 - *60대 이상 중도매인 53%(10년 후 82%), 청과 하역인 50%(10년 후 86%)
- **현재 상태의 인력 이탈 및 유통주체 고령화 방치시, 가락시장 도매기능 위축으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피해가 전달되는 악순환 불가피**

☐ 추진 사항

◆ 가락시장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산지 영향이 적은 동절기를 중심으로 휴업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개장일 탄력적 운영 추진

- (1차 시범사업) 동절기('23.11~'24.3) 중 3회 시범휴업 실시
 - 시범휴업일 : '23.11.4(토), 12.2(토), '24.3.2(토)
 - 시범휴업일 운영 방안 : 경매 미실시(정가·수의매매 실시)
 - ※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물품 반입, 중도매인 매잔품 판매 등 개별 영업가능
- (연구용역) 1차 시범사업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등 검토('24.6~9)
 - 1차 시범사업 물량·가격 영향 분석 ⇨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없음
 - 동절기 중심의 휴업일 단계적 도입 ⇨ 이해당사자 긍정적 수용 의사 확인
 - ※ 출하자(55%), 구매자(61%)의 과반이상 동의 및 약 70%(보통 포함시)의 수용성 확인
- (협의체 운영) 연구용역 및 협의체 협의 결과 반영 추진계획(안) 도출('24.9)
 - 토·일 연속 휴업에 따른 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주중 시범휴업으로 추진
 - ※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검토 협의체(총 7회 개최)
- (2차 시범사업) 늦은 김장철, 물가 상황 등 고려 동절기 2회 시범휴업 실시
 - 시범 휴업 : '25.2.12(수), '25.3.5(수)
 - 추진 방법 : 경매 미실시(정가·수의매매 가능)
 - ※ 정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물품 반입, 중도매인 매잔품 판매 등 개별영업 가능

2. 정부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적극 참여

- ◆ 상물 분리 및 규제 개선을 통한 도매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개설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적극 참여로 시범휴업당일 거래 기능 유지 여건 조성

□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24.5.1)

- (거래목표 상향) ('24) *0.5조(청과 0.3, 축산 0.2) ⇨ ('27) 5조(청과 3.5, 수산 0.5, 축산 1)
* ('24년 목표) 당초 0.3조원 ⇨ 0.5조원 / ('27년 목표) 2.7조 ⇨ 5조로 상향 조정
- (거래부류 확대) 청과 · 축산 · 양곡 ⇨ 농산가공식품, 수산부류 확대
* (가공식품) 스테비아토마토 · 고춧가루('24.5.2) / (수산물) 비축 수산물 거래('24.7.2~7.3)
- (이용자 확대) 판매자 기준 완화(50 ⇨ 20억), 거래부류 제한 폐지*, 판 · 구매자 병행**
*(현행) 가입한 부류(청과, 축산, 양곡 등)만 거래 ⇨ (개선) 모든 부류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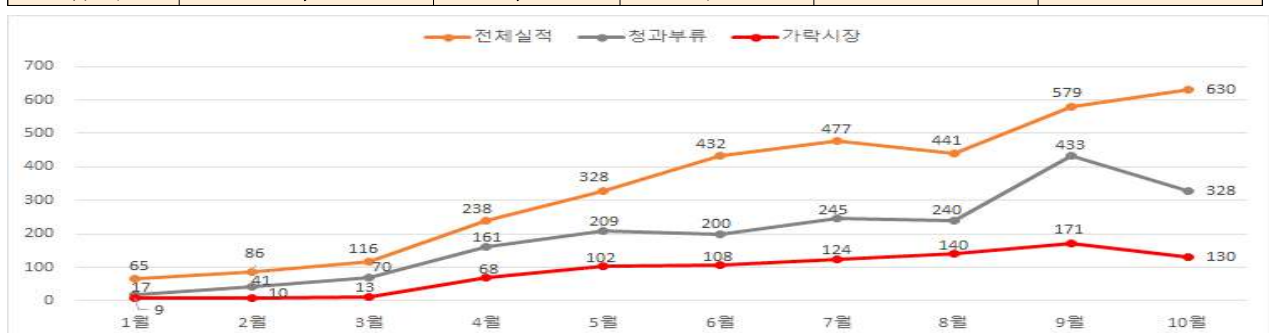
(공사) 온 · 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 운영('23~)

-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락시장 반입 기준, 거래 · 물류 데이터 연계, 거래실적 반영 및 사용료 부과 기준, 거래질서 관리 방안 등 마련

□ 정부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 온라인 도매시장의 가락시장 비중('24.1.1~10.31) : 청과부류 기준 43%
 - 전체 거래금액 : 3.392억원(청과 1,944, 수산 24, 축산 670, 양곡 713, 가공 40)
 - 가락시장 참여 : 845억원(청과 840, 수산 5) ... 청과부류의 가락시장 비중 43%
- (단위 : 백만원)

부류	전국(a)	가락시장			
		전체(b)	반입(c)	점유비율(b/a)	반입비율(c/b)
청과	194,461	84,021	37,939	43.2%	45.2%
수산	2,412	481	481	19.9%	100%
합계	196,873	84,502	38,420	42.9%	45.5%



3. 전자송품장 기반 유통 시스템 근본적 혁신

- ◆ 전자송품장 도입을 통해 반입 물량 사전 예측 및 수급 조절, 예약거래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유통·물류 효율성 강화 및 선진 물류시스템 기반 구축 도모

□ 추진 개요

- 전자송품장을 기반으로, 산지출하 ⇨ 화물차 운송 ⇨ 입차스케줄링 ⇨ 하역 검수 ⇨ 공동물류 이배송지시까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 (기존) 수기·인력 중심 후진적 관행 → (개선) 물류 표준화·전자송품장 기반에 디지털 전환

□ 추진 현황

-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스템 구축('23.11월) 및 전품목 사용 확대('24.10월~)

시행 확대	▶ ('23.11월~)6개 품목 시범 운영 → ('24.10월~)청과 전 품목 확대 ※ 시범 운영 품목(6개) : 무, 배추, 양파, 깎마늘, 배, 팥이버섯
단계별 집중 관리	▶ ('24.9월~)16개 품목 → ('25년~) 30개 품목 → ('26년~)전 품목 ※ 도매시장법인 평가 반영 등 집중 관리

✓ '24.10월 말 기준, 시범 품목 75% 전자송품장 사용 ➡ 연말 80% 목표

※ 정부 전자송품장 도입 계획 : ('23) 가락⇨('24) 강서⇨('25) 중앙⇨('26) 지방⇨('27) 의무화

- 전자송품장 시스템 편의성 및 활용성 개선('24.5~12월, 7개월)

내 용	(가락시장)시스템 Web·App 고도화 / (강서시장)신규 구축
과 제	전자송품장 확대·입력 편의·활용성 강화 등 6개 분야 21개 과제

- 출하차량 입차스케줄링 시스템 명절 등 성수기 운영('24년 설, 추석 등)

- 설 성수기 사과·배 입차스케줄링 시범운영('24.1.25~2.7) : 평균 61% 이용
- 추석 성수기 사과·배 입차스케줄링 운영('24.9.1~9.14) : 평균 83% 이용
- 김장철 무·배추 등 입차스케줄링 품목 확대 운영('24.11월~)

4. 가락시장 하역 및 배송 효율화 추진

- ◆ 인력과 수작업 위주의 하역체계를 파렛트 단위로 기계화하고 중도매인의 개별 배송체계를 공동배송으로 전환하여 배송 인력·장비 획기적 절감 도모

□ 품목별 파렛트 출하 확대를 통해 하역 기계화 촉진

- 인력과 수작업 위주 하역체계를 파렛트 단위 기계화 하역으로 개선

✓ 파렛트 출하율 : (21년)58% → (22년)61% → (23년)76% → (24년)81%

<채소 2동 품목 파렛트 전환 완료('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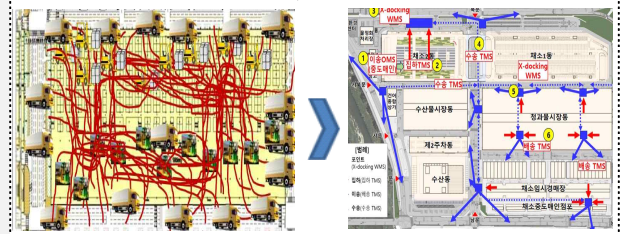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 존	개 선	효 과
출하 단계	대기 시간	· 하차까지 대기	· 하차 즉시 출차	· 평균 12시간 → 30분 단축
	하역 시간	· 차량당 4인 1조 · 90분 이상 소요	· 지게차 1대(1명) 15분 소요	· 4명, 90분 → 1명, 20분 단축
거래 단계	경매장 효율	· 장시간 차량 대기 경매장 잠식	· 파렛트 하차 진열 경매장 혼잡도 개선	· 경매장 효율성 20% 이상 증가 · 공간 회전율 극대화 실현

□ 공동물류 체계(공동 이·배송) 도입으로 배송 물류 효율화

- (기존) 중도매인 개별 배송체계 ⇨ (개선) 물류전문업체로 통합 아웃소싱

- ▶ 공간·시간·비용·안전 시너지 극대화, 고령화·인력난에 효과적 대응
- ▶ 채소2동 인력(455명)·장비(355대) 감축 연 127억원 절감, 1,775㎡ 공간 확보

[채소2동 先 도입, 물류 동선 효율화]



✓ 채소2동 우선 시행 후 Small Success를 통해 현대화 공구별 점진적 확대

↳ 채소2동 참여자 모집('24.8~9월) 및 공동 이·배송 시행('24.10월)

□ 도매시장 맞춤형 물류로봇 개발 및 실증('22~'24 산자부 국책연구 공사 참여)

- ('22~23년)이·배송 물류로봇 3종 5대 개발, 가락시장 현장 투입 실증
- ('24년) 채소2동에 적합한 상하차 및 이송 로봇 개발, 시연(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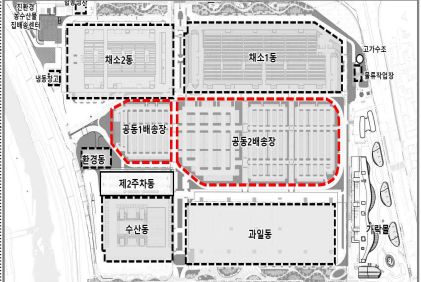
구 분	파렛트 이송 로봇 경매장(1,000kg)	무인 지게차 경매장(1000kg)	이·배송 로봇 중도매인 점포(60kg)
적용(적재량)			
로봇 사진			

5. 가락시장 공동배송장 복합개발(풀필먼트센터화) 추진

- ◆ 가락시장 공동배송장 복합 개발을 통해 유통환경 변화(온라인 거래, 풀필먼트) 및 소비자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시설(소분, 가공, 보관시설 등) 확충 검토

□ 부족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공동배송장 복합 개발 추진

○ 시설현대화사업 4공구 공동배송장(풀필먼트센터화) 추진

건축 부지	94,574㎡ (28,609평) ... 現 청과동 · 수산동	
추진 목적	농수산물 최대 물류 허브 구축 및 지역 상생 가치 제고	
미래 대비 필수 시설	On-Line, Untact 기반 소비패턴 전환 저장·소분·가공 등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 산업 생태계 고도화로 스마트 물류센터 필요	

※ 공동배송장은 건축비 미편성으로(철거비 166억원) '31년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에 나대지(주차장)로 준치

□ 저장 및 상품화 시설 확보로 도매시장 단기 수급 조절 기능 수행

○ 현대화 공구별 물류 연계, 공동 배송, 통합 관리, 시장 기능 강화

(1층)스마트 공동배송장 도매동 상품 구매자 배송 공동선별장, 배송주차장 등	+	(2층)최첨단 상품화 물류존 각 도매동과 수평 연결 상품화 저온창고, 재포장·소분·가공장 등	+	(3~8층) 스마트 BIZ Hub 민간 Business Value Chain 접목 1차 벤더, 대형유통업체 등
--	---	---	---	---

《 추진 경과 》

☞ 재정사업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시 민자를 통한 스마트 물류거점(풀필먼트센터화) 구축

▶ 기본 계획(안) 수립 ... '23.12월, SK 컨소시엄 연구용역 결과

개발 형태	스마트 복합 물류 센터 건설 (시장 기능 + 복합 물류 시설 + 농수산물산업 시설)
재원 조달	민관 협력 민자 조달(공익 사업+민간자본·기술력)



☞ 공동배송장 복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24.5~11월)

▶ 제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 예산 : 330백만원 / 건축부지 : 94,574㎡

현황 및 여건분석	사업방식 선정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
- 입지·환경·정책 분석 - 법규·상위계획 검토 - 개발여건·특성 분석	- 도입 가능 사업방식 검토(3개 이상)·선정 - 입주의향 실태조사	- 개발 기본계획(안) - 필요시 공공기여 방안 - 인허가 처리 방안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 유관기관 협의 방안 - 장애요인 극복 방안 등

✓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공동배송장 지하(2~3층)에 단기 비축기지 설치 운영 관계부처 건의